

## 로씨야서사시 《김일성장군》의 사상예술적특징

엄명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민족과 전세계가 우러러바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이 우러러바드는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오늘 세계 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는 송가작품들이 활발히 창작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칭송한 송가문학창작에 이바지한 세계의 이름있는 창작가들가운데는 로씨야시인 니콜라이 마즈베예비츠 그리바쵸브도 있다. 그는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한 첫 송가작품을 창작한 시인으로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니콜라이 마즈베예비츠 그리바쵸브(1910—1992)는 1910년 12월 오를로브스크주(오늘의 브란스크주)의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1932년에 수리전문학교를 졸업한 그는 처음에는 《크라쓰나야 까렐리야》신문사에서, 그후에는 쓰몰렌스크에서 1941년까지 기자로 일하였으며 조선작가동맹 제1차대회에 대표로 참가하였다.

쏘도전쟁시기에 그는 공병대대장으로서 쓰딸린그라드전투와 돈지방에서의 여러 전투들에 참가하여 용맹하게 싸웠으며 1943년부터는 중군기자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다가 타박상을 입고 제대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부터 1991년까지 그는 잡지 《쏘베쯔끼 쏘유즈》의 책임주필로 일하면서 동시에 여러 사회적직무를 겸임하였다. 그는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로련최고 쏘베트 대의원으로, 1959년부터 1991년까지 쏘련작가동맹위원회 비서로, 1961년부터 1990년까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사업하였다.

생애의 전기간 그는 많은 시작품들과 소설작품들을 내놓았으며 정론 및 평론글들도 썼다. 그가 내놓은 시집들만 하여도 10여권이 되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시집 《전쟁의 로정을 따라》(1945)와 《친근한 고향사람들》(1954), 《별들의 노래》(1979)이다. 그가 창작한 서사시들인 《폴호즈 〈볼셰비크〉》(1947)와 《〈뽀베다〉의 봄》(1948)은 국가상을 수여받은 작품들로서 그에게 작가적명성을 가져다주었다. 그의 시작품들가운데는 조선을 노래한 시집 《정복되지 않는 조선》(1950)도 있다. 1970년에 그는 단편소설집 《대대장동무, 안녕하오!》를 내놓았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주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발휘된 쏘련인민의 투쟁정신과 위훈,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였다.

니콜라이 그리바쵸브가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서사시 《김일성장군》이다.

서사시는 1949년 가을 우리 나라를 방문한 니콜라이 그리바쵸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는 영광을 지닌 격동된 심정에 기초하여 창작한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우신 인품과 위대하신 품모에 깊이 감동된 그는 그후 조국으로 돌아가 인차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작품창작에 달라붙었으며 그 다음해인 1950년말에 서사시 《김일성장군》을 완성하여 내놓았다.

로씨야시인 니콜라이 그리바초브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칭송한 서사시 《김일성장군》을 창작할수 있었던것은 그의 마음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깊이 간직되어있었기때문이다.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1949년 가을부터 1950년 가을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조선을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시인의 격동된 심정과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칭송하고있다.

서사시는 모두 5개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그이의 위대한 품모와 인품에 감동된 서정적주인공의 격동된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소탈하시고 너그러우신 인품에 끌려 서정적주인공은 어려움도 있고 저도모르게 그이의 이야기에 심취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쏘련과 조선의 예술, 무용가들과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사냥과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주인공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 밤이 펴 깊어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한 일군으로부터 며칠전에 존경하는 김정숙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가슴아픈 소식을 뜻밖에 전해들은 주인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가슴속에 것처럼 쓰러린 상처를 안고계시면서도 전혀 내색을 하지 않으시고 환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장시간 담화를 나누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하신 영상이 어려와 주인공은 그이의 위대한 인품에 머리를 숙인다.

시인은 계속하여 마음속의 깊은 상실의 아픔과 비애를 누르시며 강철의 의지로 새 조국건설을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제2장에서는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 서정적주인공의 걱정과 흥분, 숭엄한 감정세계를 노래하고있다.

단풍이 붉게 타는 가을 어느날 서정적주인공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을 돌아본 그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푸른 하늘과 락엽을 바라보며 류다른 감정에 휩싸인다.

그가 찾은 집은 조선의 농촌마을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너무나도 소박한 초가집이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로 이러한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인민이 겪은 불행과 고통을 다 체험하시였기에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싸움의 길에 나서시였다고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초가집은 비록 수수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고 심장과 심장이 이어지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제3장에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피어린 항일무장

투쟁을 벌려 일제침략자들을 쳐물리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시인은 날새들도 날아넘기 저어하는 백두산의 아득한 절벽을 내려 배후공격으로 왜놈들을 죽인 항일빨찌산들의 전설적인 전투이야기를 노래하면서 인민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혈전만리를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레찬하고있다.

제4장에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참패를 거듭하면서 불안에 떠는 미제의 몰골을 풍자조소하고 령활한 전략전술로 침략자들을 수세에 몰아넣으며 전체 인민을 조국보위성전으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철의 의지와 담력을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

재더미로 된 폐허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승리를 내다보시며 오만한 미제를 몰아낼 작전적구상을 펼치시며 침략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신다.

제5장에서는 언제나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속에 계시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인민군전사들속에서 전해지는 가지가지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펼쳐보이면서 언제나 전선에 계시며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령도력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순간의 휴식도 없이 평양에서 함흥으로, 남포로 오가시며 포연서린 전호가에서 전사들을 만나시였으며 그들의 가슴에 승리의 신심과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심어주신다.

시인은 3천만인민을 원쑤와의 결전으로 불러일으키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여 전승의 그날이 반드시 올것이라는 락관을 표시하고있다.

서사시의 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인민의 위대한 아들, 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매한 품모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것이다.

시인은 작품전반에서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계시는 인민의 수령으로서의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덕망과 위대한 품모를 보여주는데 힘을 넣고있다.

시인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이 겪는 불행과 아픔을 다 겪으시며 성장하신 인민의 아들이시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것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한 서정적주인공의 숭엄한 감정세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표현되고있다.

민족수난의 시기 평범한 인민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나 볼수 있는 만경대의 소박한 초가집앞에 서있는 주인공의 생각은 깊어진다. 추녀났은 이 초가집에서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만행도 목격하시고 인민이 겪는 가난과 고통, 모든 불행을 다 체험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기에 인민을 구원하실 높은 뜻을 지니실수 있었다는 생각으로 하여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은 더욱더 숭엄해진다.

인민을 망국노의 운명에서 구원하실 큰 뜻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청춘시절에 눈덮인 백두산으로 싸움의 길을 떠나시였다고 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

여기에서 그이는 성장하셨다

여기에서 그이는 어느때가  
안개낀 대동강물결을 거슬러오르는  
흰 돛의 나무배를 보시였다

...

이것으로 그이의 어린시절은 끝났고  
백두산으로 눈속으로 내짚은  
청춘의 길—싸움의 길 시작되였다  
온 나라를 구원하는 길

시인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은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가장 어려운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을 마음속에 안고 싸우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이것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의 승화된 사상감정과 시적인 토로를 통하여 밝혀지고있다.

시인은 《세상 그 어느 산과도 비교할수 없이 별들을 다칠듯 높이 서있는 오각의 흰 산이 북쪽에 있다》고 하면서 바로 이 백두산에서 항일빨찌산대원들이 일제와 싸워이긴 전설적인 전투장면을 펼쳐보이고있다.

뼈속까지 얼어드는 백두의 천고밀림속에서 아슬아슬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빨찌산대원들이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일제와 맞서 싸운다. 모진 추위에 온몸이 얼고 가렬한 전투로 하여 지칠대로 지친 빨찌산대원들이 원썬들과의 결사전에 서슴없이 목숨을 내대려 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선에는 산 사람보다도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인민을 위하여서는 마음대로 죽을 권리도 없다고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신다.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이때 기진한 전사들에게  
장군님께서 높이 하신 말씀—  
《그것은 쉬운 죽음이다  
누구나 그렇게 죽을순 있다  
그렇다고 적의 총구는 멎지 않는다  
적의 칼은 칼집에 들지 않는다

조선엔 죽은 사람이 너무도 많아  
조선엔 산 사람이 있어야 한다!  
비록 이 시각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제 생명에 대해 맘대로 못한다  
우리들은 운명을 인민에게 바치였거니  
또한 인민이 그것을 결정한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행에 떨고있는 인민을 구원하는것을 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였기에 것처럼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아올수 있었다고 절절히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또한 시에서 위대한 수령님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계시는

인민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뚜렷이 밝히고있다.

이것은 단풍진 가을날 만경대고향집을 찾아오는 각계각층 사람들을 바라보는 서정적 주인공의 깊은 인상과 숭엄한 감정으로통해서 표현되고있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아오는 사람들가운데는 두메산골의 녀인도, 성진의 로동자, 동해 어촌의 어부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를 따라배우려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그들을 바라보는 서정적주인공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인다.

만경대고향집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서정적주인공은 인민의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

서사시의 사상적내용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보여준것이다.

그리바쵸브가 서사시 《김일성장군》을 완성하여 내놓은것은 1950년 11월이었다. 이 시기는 우리 인민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였다.

그러나 시인은 서사시에서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여 조선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여기에 서사시의 사상적내용의 중요한 의의가 있다.

시인은 우선 탁월한 작전적구상과 뛰어난 군사전법, 천리혜안의 예지로 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선인민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필승의 락관과 확신을 표현하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적구상과 군사전법앞에서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불안에 떠는 맥아더의 가련한 물골을 풍자하면서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어려운 전쟁의 난국을 타개하며 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한 품모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그리하여 맥아더는 미친듯 서두르면서

군사지도를 찾는다

그러나 그 많은 지도들중에서

하나의 지도만은 찾지 못하리라

공격의 창끝을 옳바로 타산한 그 지도

그 지도를 맥아더는 못 찾는다

그 지도는 김일성장군의 수중에 있거니

그 지도의 힘은 무서운것이였다

시인은 또한 가렬한 전쟁의 전기간 언제나 인민군전사들과 인민들과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형상을 보여주면서 조선인민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고한 신념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포연서린 전호가나 치렬한 격전장 그 어디를 가보아도 위대한 수령님의 발자취가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면서 전사들과 인민들속에서는 《새벽 어느 참호곁에서

〈아리랑〉을 부르시는 그이를 만나뵈웠거나 또는 그이께서 포연서린 전호에 직접 나오시여 용감한 전사에게 군공메달을 수여해주시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지고있다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장군께서 어디에 가시고  
어디에 안가셨는지  
전진속에서 불길속에서  
어떻게 걸으셨는지 나는 모른다  
  
병사들의 신성한 전설에서  
어느것이 실화인지  
어느것이 풍설인지  
나는 모른다  
  
허지만 나는 잘 알고있다—  
폭격속에서 포연속에서  
장군은 새힘을 준비하신다  
양키참모부의 쥐들은 예상도 못하는...

시인은 전사들과 인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든지 다 찾아가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이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인민이 있어 조선은 미제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노래하고있다.

시인은 시의 마지막부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폭격소리에 강산이 뒤울리고  
땅크들이 육박전에 내달는 전선에서  
삼천리를 굽어살피시며  
령장께서는 걸으신다  
  
모든것을 들으시며 보시며  
모든것을 아시며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르치신다  
사단도 군단도 아니라 3천만을 결전으로 일으키신다  
  
폭격에 무너지고 불탄 조선에  
아직은 명절이 오지 않았건만  
전쟁의 어려운 시각에도  
령장께서는 벌써 승리를 예견하시였다  
나의 심장은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서사시에서는 인민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조국해방의 성전과 침략자들과의 결전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시는 예술적측면에서도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서사시적인 특성과 서정시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시의 서정성을 깊이있게 보장하고있는것은 시의 중요한 예술적특징으로 된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가운데서 일정한 시기를 선택하여 서사시적인 구성속에 담고있으면서도 시의 서정성을 깊이있게 보장하고있다.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과 혁명적성장, 백두산에서의 항일무장투쟁, 조국해방전쟁의 첫 시기를 중요한 시적계기로 잡고 시인자신을 념두에 두는 서정적주인공을 등장시켜 그의 시점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감정을 깊이있게 열정적으로 토로함으로써 송가작품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다.

서사시의 예술적특징은 또한 장중하면서도 승엄한 정서적색채와 밝은 양상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감정을 절절하면서도 깊이있게 표현한것이다.

서사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승엄한 정서적색채로 노래하면서도 밝은 양상을 보장하고있다. 특히 시인은 간고했던 항일무장투쟁과 새 조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칭송의 감정을 주도적인 감정으로 정서적으로 끌고나가면서도 밝은 양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인민이 걸어온 승리의 역사를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뜻이 깊고 형상이 풍부한 시어들을 잘 살려씀으로써 시인의 사상적의도를 명백히 표현하고있는것도 서사시의 중요한 예술적특징의 하나로 된다.

이처럼 서사시 《김일성장군》은 항일무장투쟁과 새 조국건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작품인것으로 하여 세계의 진보적이며 혁명적인 시문학 특히 송가문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실마리어 로씨야서사시, 강철의 령장, 불멸의 업적